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영역별 사회복지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Social Welfare in the Life Area of Marriage Immigrant Women

저자 (Authors)	김기화, 김영순 Kim, Gi Wha, Kim, Young soon
출처 (Source)	여성학연구 28(1) , 2018.4, 155-184 (30 pages) PNU Journal of Women's Studies 28(1) , 2018.4, 155-184 (30 pages)
발행처 (Publisher)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Women's Studies Center, Pusan National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436680
APA Style	김기화, 김영순 (2018).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영역별 사회복지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i>여성학연구</i> , 28(1), 155-184.
이용정보 (Accessed)	인하대학교 165.***.136.120 2018/12/17 16:51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영역별 사회복지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김기화** · 김영순***

| 목차 |

- | | |
|-------------------------|------------|
| 1. 서론 | 3. 연구 방법 |
| 2. 결혼이주여성 사회복지 연구
쟁점 | 4. 연구 결과 |
| | 5. 결론 및 논의 |

| 초록 |

본 연구는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과정을 3개 생활영역(결혼생활과 가족관계, 취업 및 경제활동, 사회적 관계)으로 구분하여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복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는 결혼이주여성 10명(한족 7명과 조선족 3명)이며, 자료 수집을 위해 개별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는 중심주제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분석 방법은 특정한 이론적 틀을 적용하기보다 자료를 읽으면서 나타나는 중심주제를 찾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 중심주제와 소주제, 핵심 개념(단어, 구)을 도출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모도우미 및 아이 돌봄과 같은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주여성들의 자녀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이주 배경은 어머니로서의 역할 수행에 장애가 된다. 둘째, 직업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만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 장벽을 경험하며,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른다. 셋째, 이주 초기에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취약한 특성을

* 본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B4055802).

** 주저자: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17094@inha.ac.kr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kimysoon@inha.ac.kr

보이나 한국생활에 적응 후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시켜 나간다. 한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이원화된 전달체계와 분절된 복지 정보로 인해 접근성에 있어 제약을 경험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 속에 나타난 복지와 관련된 의미 있는 경험들을 주제화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다문화 사회 구현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결혼이주여성과 그들이 속한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담보하는 것은 사회통합에 있어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결혼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족, 사회복지, 사회통합, 사례연구

1. 서론

사회복지란 한 사회 안에 사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일생 동안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노력이다(이종수, 2009). 이러한 사회적 노력은 정책형성 과정을 거쳐 수혜자에게 구체화 되어 전달되는데 이를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사회복지지는 한사람이 일생동안 모든 생활영역에서 접하는 개인적 행동 및 사회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주민들에게 사회복지지는 자신이 살던 본국과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이주국의 사회적응을 위해 필수적인 삶의 맥락을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결혼을 조건으로 한국에 이주한 여성들의 적응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게 된 것은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이주자의 인구 다양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2017년 10월 현재 한국 내 체류 외국인인 2,135,049명으로 지난 2007년

보다 그 수가 약 2배가 증가했으며, 이 수치는 전 국민의 약 3.5%에 달한다. 이러한 외국인의 양적 증가는 한국사회에 다양한 가족형성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016년 전체 혼인 281,635건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1,709건으로 7.7%이다. 특히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은 153,818명이며, 다문화가정은 316,067가구이다(통계청, 2016). 다문화가족의 양적 증가는 1992년 한국·중국 국교수립을 계기로 한국인 남성과 조선족 여성과의 국제결혼으로 시작되었다(김성옥, 2013). 특히, 1990년 한국 정부가 ‘연변처녀·농촌총각 짝짓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선족 여성들과 한국 농촌 총각의 국제결혼은 급격히 늘어났다(홍기혜, 2000).

결혼이주여성의 등장과 양적 증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기관이 생겨났지만 전체 결혼이주여성 규모에 비추어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반면에 여성가족부에서 설치 운영하는 전국의 21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다문화가족에 특화된 기관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이용률이 타 지원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다(강희영·문영민, 2017).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국제결혼이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모두 6개의 생활영역(사회적 지지, 가족생활, 지역사회, 건강, 임신·출산, 심리·정서지원)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밖에 취업부모(만 12세 이하)의 집으로 찾아가는 1:1 개별 양육지원 서비스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결혼이주여성 사회복지 서비스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을 보호하고 의료, 법률 지원, 치료 및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주거를 제공하며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해 쉼터 26개소, 결혼이주여성 그룹 홈 2개소, 한부모 이주여성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결혼이주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직업훈련, 인턴쉽 등을 지

원한다. 그밖에 취업 취약계층인 결혼이주여성의 고용활성화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 새일센터를 통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인 바리스타, 통·번역사, 다국어 상담원 양성과정 등 결혼이주여성들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턴십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정부는 이주민의 사회통합이라는 거시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문화적 차이, 가족 갈등,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 불확실한 신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머지않아 주류사회와의 갈등이 발생되어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게 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긍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은 미시적으로는 가족안정을 이루고 거시적으로는 사회통합을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그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담보하고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중요한 것은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 정책이 수요자 지향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요 생활영역에서 나타난 결혼이주여성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사회복지 정책은 전달체계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에게 제공됨으로써 실현된다. 이에 정책이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수량화된 양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정책을 이용한 당사자의 경험이 어떠한지에 대한 탐색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 질적 연구 방법의 활용이 필요하다. 질적 연구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정책의 개입에 있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와 같은 블랙박스의 내면을 이해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적 연구 방법의 특성을 활용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 적

응과정에서 생활영역 별로 사회복지를 어떻게 이해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2. 결혼이주여성 사회복지 연구 쟁점

다문화가족은 일반가족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결혼이주여성 본인의 사회문화 적응, 배우자와 가족들과의 관계, 자녀양육 및 진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결혼이주여성의 적응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성을 위해 2008년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생활 전 영역에 걸쳐 적응 및 사회복지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이 중 ‘결혼이주여성 복지’, ‘다문화 복지’, ‘다문화가정 복지’라는 키워드로 논문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할 경우, 대개 10개 정도의 논문들을 탐색할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논문을 열거하면, 윤혜미(2009), 이영분 외(2010), 이주재·김순규(2010), 공수연·양성은(2014), 김인나·최승아(2016) 등이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으로부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과 경제 활동을 위해 자신의 역량을 계발하고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의 경험과 요구를 다루고 있다. 두 번째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윤혜미(2009)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 관련 주요 요인을 개인과 가족 관계, 지역사회, 사회문화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임파워먼트 기반 사회복지실천 접근의 내용을 각각의 쟁점 별로 거시, 중도, 미시적 수준에서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이영분 외(2010)의 경우, 농촌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 욕구 조사를 수행한 바, 남편의 문제행동 상담에 대한 욕구, 자녀양육 및 교육관련

육구, 취업교육 육구, 취업알선 육구 등으로 복지의 하부 구성요소를 구별하였다.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의 연령과 학력, 국적, 지역사회자원 등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제공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주재·김순규(2010)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 이해 교육, 한국어 및 문화 적응 교육, 기타 서비스 등 3가지 사회복지 서비스 유형을 추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결혼이주여성의 복지를 크게 구분하고 있는데 결혼이주여성 가정의 의식주 생활 경제, 의료 및 건강, 정서적 및 각종 상담, 취업 교육 영역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공수연·양성은(2014)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 동기가 좋은 어머니로서의 역할모델과 인정육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다소 제한적이나 자신들의 사회망 안에서 취업전략을 세웠고, 외국인 이란 현실에 대한 무력감, 한국의 고용불안정, 낮은 다문화 수용도로 인해 취업하기 어렵다고 밝힌다.

김안나·최승아(2016)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 사회복지 서비스, 임파워먼트,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수준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향상되었고, 생활만족도 역시 높아지고 있었다. 또한 임파워먼트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과 생활만족도 사이에서 완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을 통한 임파워먼트 향상은 생활만족도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 사회복지에 관한 선행연구와 더불어 중국계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사회적응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 내에 중국 조선족과 한족 결혼이주여성 증가와 더불어 그들에 대한 연구가 강유진(1999), 홍기혜(2000), 강미선(2013), 덩징야(2013), 장효위(2013) 등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중국계 결혼이주여성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이들의 결혼실태 등 여성학적 관점이 주를 이루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자녀양육 및 어머니 됨의 의미,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김윤경, 2017).

또한 중국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다룬 이민경(2015)의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 이들 중국계 결혼이주여성들은 노동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스스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 현장에 있다. 그렇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는 취약성이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이해응(2013)이 수행한 연구의 내용인 조선족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직장보험 가입이 어려운 직종인 개인간병, 가사도우미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부합한다.

노은하(2016)에서는 중국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등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의 지지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때 어머니로서 역할수행에 더 높은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고한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있어서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이 가족의 지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자원 활용이 가능한 통합적 복지서비스의 체계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에 관한 두 가지 방향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우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과정에서의 사회복지 경험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계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회복지 관련 연구이다. 두 가지 유형의 선행연구들이 지니는 공통적인 내용은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개선 방안의 필요성이다. 둘째, 가족의 지지, 나아가 사회적 지지로써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 통합적 복지서비스 활용이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양한 생활영역 중 결혼 및 가정생활, 취업 및 경제활동, 사회적 지

지 영역을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양적 연구임을 감안할 때 이런 생활영역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 서비스 경험 혹은 필요성이 심층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실제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영역에서 나타난 복지 관련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국남성과 국제결혼을 한 중국 결혼이주여성 10명으로 한족 7명과 조선족 3명이다. 연구참여자들의 연령은 30대 5명과 40대 5명이며, 학력은 고졸 6명과 대졸 4명이다. 한국 국적 취득자는 3명이며, 영주권(F5) 6명, 결혼비자(F-6)는 1명이다. 연구참여자의 한국 거주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 3명, 6년 이상 10년 이하 4명, 11년 이상 3명이다. 참여자 중 8명이 자녀를 두고 있으며, 9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인 연구참여자의 특성과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정보는 다음 <표 1>에서 제시하였다.

<표 1> 결혼이주여성 연구참여자 정보

구분	본 인				배우자		자녀 (성:나이)	거주기간 (년)	
	나이	민족	국적	학력	직업	나이			직업
1	37	조선족	취득	고졸	자영업	46	회사원	여:15 남:11	16
2	38	조선족	취득	고졸	화장품회사연구원	48	회사원	여:17 남:15	16
3	39	한족	F5	고졸	자영업	46	택시 운전	여:10 여:8	9
4	44	한족	F5	고졸	자원봉사	43	무직	없음	5

구분	본인					배우자		자녀 (성:나이)	거주기간 (년)
	나이	민족	국적	학력	직업	나이	직업		
5	32	한족	F5	대졸	주부	50	자영업	남:8 여:6	8
6	47	한족	F5	고졸	화장품 판매	51	회사원	여:16 여:13	19
7	47	한족	F5	대졸	화장품 판매	49	회사원	여:13	10
8	39	조선족	취득	대졸	중국어 강사	47	회사원	남:10	9
9	40	한족	F-6	대졸	자원봉사	50	자영업	없음	3
10	40	한족	F5	고졸	통역	55	무직	남:9	5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중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사례연구란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례가 시간과 장소에 의해 제한된 범위를 갖는 경계 지어진 체계에 대한 연구이다(Stake, 1995). 또한 시간과 장소에 의해 경계 지어진 체계 내에서 어떤 현상이 발현하는지를 이해하거나 발현한 현상이 어떠한 과정으로 발전하는지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연구 방법이다(Creswell, 2007).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 방법을 채택한 것은 경계 지어진 체계가 바로 결혼이주여성이며,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토대연구사업 ‘다문화 생활세계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인하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승인을 받았다. IRB의 연구윤리 규정 준수에 따라 참여자들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와 허락을 받았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이다. 심층면접은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 회의실 혹은 연구참여자의 가정이나 직장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면접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탐색하고 의미 있는 내용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반구조화 질문을 사용하였다. 주요 질문 내용은 한국 사회에 유입된 이후 시간적 흐름에 따라 결혼생활, 자녀양육, 취업 활동 등에서의 사회복지 서비스 경험이다.

연구참여자들이 결혼이주여성들은 모두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주기간이 짧은 연구참여자들은 심층적인 내용을 이해하거나 표현하는데 어려워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언어의 맥락과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가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Topik 5급 이상의 중국인 유학생과 재중동포 유학생이 면접에 참여하여 쉬운 단어로 알려주거나 그 의미를 중국어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의 메시지 전달의 모호함을 해결할 수 있었다. 면접이 끝난 후 바로 연구자 회의를 통해 비언어적인 사항, 면접과정 중 관찰된 내용과 느낀 점을 연구노트에 기록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면접이 처음 이루어진 시점부터 동시에 진행되었다. 자료의 분석 과정은 Braun & Clarke(2006)의 중심주제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중심주제 분석 방법은 연구자들이 귀납적 논리를 기반으로 연구참여자의 인터뷰 내용 중 반복되는 패턴을 찾고, 주제를 내용 유형별, 위계별로 범주화하고 주제들 간의 관련성을 찾아 해석하는 방법이다. 연구참여자 10명으로부터 수집된 전사 자료는 A4 용지 약 170매이며, 단위 문장은 2300개 정도였다. 단위 문장들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의미 단위들을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하고 범주화 시켰다. 유사한 의미를 지닌 정보들을 동일한 범주 내에 위치시키고, 범주 내에서는 위계별로 구분하였다. 범주 간에는 독립적이고 서로 배타적이어야 하므로 범주간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범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해체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범주를 재구조화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연구자 및 연구팀의 정례 세미나에서 자료의 삼각검증을 실시하였다. 특히 질적 연구의 특성인 순환적 탐색과정을 통해 이슈가 되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은 연구자들 간의 토론 및 선행연구와의 병치, 대조 등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연구결과 주제로 제시된 3개의 생활영역(결혼생활과 가족관계, 취업 및 경제활동, 사회적 관계)은 이주여성 사회복지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주요 요인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되는 복지 서비스 영역을 참고하였다. 결혼생활과 가족관계의 소주제는 ‘자녀출산과 양육’, ‘이주배경으로 인한 자녀교육 역할 수행의 제한’ 으로 나타났다. 취업 및 경제활동에서는 ‘직업 확보를 위한 노력’이 사회적 관계에서는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의 어려움’, ‘사회적 관계 확장’이 소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생활영역 별 사회복지 서비스 경험과 아울러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는 ‘복지 서비스의 제한된 접근성; 통합서비스 구축’으로 나타났다. 결과는 다음 <표 2>에서와 같이 4개의 주제 영역, 6개의 소주제, 13개의 핵심개념으로 나타났다.

<표 2> 생활영역별 사회복지 경험과 이용과정

주 제	소주제	핵심개념	
생활영역	결혼생활과 가족관계	자녀출산과 양육	찾아가는 서비스; 산모도우미 및 아이 돌봄
		이주배경으로 인한 자녀교육 역할 수행의 제한	교사와의 언어소통 어려움; 통역서비스 필요 학교생활에 부정적 영향 우려; 다문화가정 습기기
	취업 및 경제활동	직업 확보를 위한 노력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재교육
			전공 및 학력 미인정 경제활동의 장벽; 차별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의 어려움	편견의 일상화
			심리·정서적 소외 중국 사람들과의 사적 지지관계 형성
	사회적 관계 확장	지역사회에서의 봉사활동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과정	복지 서비스의 제한된 접근성; 통합서비스 구축 필요	구분된 복지 서비스; 수혜의 낙인화 다중언어 서비스 제공의 미흡 분절된 복지 정보	

1) 생활영역별 사회복지 경험

(1) 결혼생활과 가족관계

대부분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로의 이주는 국제결혼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이주와 함께 가족이 구성되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자로서 어머니 역할을 수행한다. 이주여성들은 자녀 출산 시 친정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녀 돌봄은 더욱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받았던 복지 서비스 중 자녀 돌봄은 자녀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적 지지체계가 취약한 특성을 가진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고 효과가 검증된 만큼 확대될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애기 낳고서 어떻게 키우는지 몰라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구요. 시어머니도 없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연구참여자 3)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는 결혼이주여성이 기관으로 나올 수 없을 때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또, 가정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에 적합하다. 공적인 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자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지지자, 정보 제공자, 서비스 전달자, 한국어와 문화를 알려주는 교육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발굴하고 개입 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발휘하게 된다.

“근데 그런데, 제가 그때 요리 선생님 집으로 오는 서비스를 신청했어요. 그때 제가 진짜 그 선생님한테 정신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때 처음에는 할머니 요리 선생님이 잘해도 주고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같이 얘기도 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교육선생님이 아기 교육 집에 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집에서 담고 있는 문제, 스트레스가 같이 얘기하기 때문에 풀렸어

요. 어차피 집에 사람이 와야 해요. 제가 그때 아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못나가요. 그래서 제가 못 나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선생님이 와야 해요. 그래야 같이 만나고 얘기하고...(이하 생략)...”(연구참여자 5)

자녀가 유아기와 아동기가 되면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양육을 위해 사회적 관계가 확대된다. 자녀의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해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언어적 의사소통이다. 아직 한국어 구사가 미숙한 결혼이주여성들은 교사와의 대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겨우 간단한 의사소통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의사소통 장애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교육 참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에 대해 모르고 있어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개입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에 교육기관에서 공식적인 학부모 참여 행사나 상담이 있을 때 통역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박명숙(2010)이 다문화가정의 아동 121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 초기에는 통역을 지원하고, 동시에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양육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해 잘 알게 되고, 무엇보다 어머니-교사 간의 상호관계는 자녀의 학교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 교육에 어머니로서 온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다문화 가족 자녀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외국 사람이잖아요. 학교 가는 것 조금 부담스러워요. 어떤 말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뭐 물어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우리 아기 내가 잘못 이야기하면 우리 아기 안 좋은 것 일어날까봐. 외국 사람들 특별히. 물어보고 와서도 무슨 안심 했는데. 그래도 한국에서 교육을 학교를

모르니깐. 학교 궁금하죠. 물어보는데도 알려줘도 좀...(이하 생략)...”(연구참여자 6)

“공개수업에 갔는데 선생님 서로 이거 대화 없어요. 말도 선생님한테 말도 안통해서 그래서 이거 관심 없어요. 우리 신랑 다 봐줘요. 연락처 다 우리 신랑 받아요. 제가 못해요.”(연구참여자 10)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방해가 되는 핵심요인은 ‘이주배경’으로 드러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가 다문화가족이라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있었는데, 이는 엄마가 결혼이주여성이라는 것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엄마가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사실이 한국사회에서 편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엄마도 자기애가 다른 애들한테 우리 애가 외국사람 아기인 거 들키게 하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어 해요.”(연구참여자 5)

“조금 피해요. 일부러 피해요. 엄마들이 혹시 싫어할 가 봐, 이렇게 생각 있어요. 내가 왜 한국 애기 엄마들 피해요. 나도 옛날 들은 적이 있어요. 중국 사람을 무시해요. 그래서 일부러 피해요. 그냥 그것처럼 만나야 갈등이 생기지, 만나지 않으면 갈등 같은 것 생긴 기회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일부러 피해요.”(연구참여자 7)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족들의 ‘어머니의 출신 배경 숨기기’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자녀의 교육성취를 이루기 위해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은 필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머니의 교육역할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교육적 상황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성취는 낮아질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으로 인해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또래집단에서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자녀교육에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런 점으로 청소년기 자녀들에게는 정체성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어머니의 출신을 숨기는 문화 속에서 성장한 자녀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불확실한 신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배경으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통번역 서비스 제공, 한국어 교육 기회 확대가 복지적 차원에서 요구되며, 결혼이주여성 자녀들의 복수적 정체성 정립을 위해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하고, 어머니 나라를 방문하여 상호문화 이해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검토되어야 한다.

(2) 취업 및 경제활동

■ 직업 확보를 위한 노력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다. 참여자 대부분 '취업성공 패키지' 서비스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결혼이주여성은 서비스 대상자가 된다. '취업성공 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 지원체계이다(고용노동부, 2017). 하지만 교육 과정은 결혼이주여성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드러났다. 취업교육 과정에 필요한 현금서비스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취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실제 고용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또, 이주배경만으로 '취업성공 패키지'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는 점과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란 정책목표가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자격증 취득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다. 구직 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학원비 및 교통수당을 지원해주었으며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상담 및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중간 생략)... 또한 결혼이민자의 장점을 고려하여 적성에 맞는 채용하려는 사업장을 발굴하여 많은 결혼이민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구직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구참여자 8)

“한글 2007도 배우고 엑셀도 배우고 그리고 파워 포인트도 배웠어요. 그때는 예전에 한 2년 전에 그게 일 다니고 화장품 판매 회사에 들어가시고, 매장에서 일 업무 보고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업무 보고, 재고조사 하고, 그렇게 사용해 본 적 있는데...(이하 생략)...” (연구참여자 6)

“직업훈련을 통해서 창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배우고 나서 다른 일을 하게 돼서요.” (연구참여자 1)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중국에서 공부한 전공이나 학력이 한국에서 취업하는데 연계되거나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 8은 한국과 중국 간의 전문 자격증이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 한국에서 일을 하기 원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전문 자격증 과정을 새롭게 공부하거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 결혼이주여성들이 원하는 직종으로는 이주배경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통번역, 이중언어 강사, 다문화가족 상담사 등을 선호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중국 결혼이주여성들은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갖고 있었지만 이주여성들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거나 파트타임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고 있다.

“자격증 때문에 어쨌든 한국에 자격증이 인증이 돼야 하나까 다들 방송대에서 공부 또 하고 자격증 땀어도 또 하고 그것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뭔가를 한국에서도 대학을 인정해줬으면 공중 할 수 있으면 공중해서라도 이 사람은 교육 할 수 있다는 것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8)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은 고용현장에서 차별과 같은 부적절한 처우를 받는다고 이야기하였다. 동일한 노동을 하고 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구직활동을 하면서 중국출신의 배경이 경제활동 참여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었다.

“월급이요.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들어봤는데 똑같은 사람 한국사람 더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고...(이하 생략)...” (연구참여자 2)

“외국 사람은 왜 정규직 직원 안돼요? 다 2년 계약제도예요. 우리도 정식 직원하고 싶은데 못해요.” (연구참여자 10)

뿐만 아니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 인식하게 된다. 근로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일반주민들과 똑같이 때문에 차별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다문화교육을 문화다양성 교육과 연계하여 다른 문화권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장에서는 인권교육 차원에서 차별이 지양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3) 사회적 관계

결혼이주여성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사회적 편견과 마주하게 되는데, 대중교통 시설에서 혹은 대형 마트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불편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특정한 이유 없이 직접적으로 반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암묵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에서 불쾌감을 느끼지만 대응하지 못하고, 심리사회적으로 위축된다. 특히, 흉악한 범죄에서 가해자가 조선족인 사례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되면서 사회적 반감은 더욱 심화되었다. 한국사회

에서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재중동포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정도를 넘어 범죄자라는 편견을 만들고 그로 인해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우리 지난번에 버스 탔을 때 이 아저씨, 조용히 해. 나 진짜 중국사람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구참여자 6)

“뉴스 같은 것도 보면 꼭 범죄 같은 게 일어나면 꼭 그 ‘조선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인이 심하다.’ 막 자극적인 제목으로...(이하 생략)...” (연구참여자 1)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전 결혼이주여성들 대부분은 사회체계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숙한 한국어와 다른 문화적 배경은 상호 친밀한 관계형성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람들과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심리·정서적으로 취약하게 된다. 언어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으며, 생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처전략도 없다. 이주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은 배우자와 시댁 가족들만의 한정된 사적 관계형성의 특성을 보인다. 제한된 사회적 관계형성으로 심리적으로 고립되기도 하고 특히, 배우자나 시댁 가족들과 갈등이 있을 경우 심리·정서적인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친정가족이나 친구를 대신 할 수 있는 정서적 지지체계가 필요하다.

“주변 아는 사람과 간단하게 한국어로 해요.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재미없고 감정도 풀 수 없고...(이하 생략)...” (연구참여자 9)

결혼이주여성들은 같은 중국 출신의 이주여성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사적모임을 만들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적 기관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조모임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록 매개역할을 해야 한다. 자조모임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한국 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주 초기 한국사회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이 된다.

“친한 친구 몇 명 있어요, 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우리 같이, 친해요. 몇 명이 있어요. 한국에서 만나는 (중국 출신) 친구들...(이하 생략)...” (연구참여자 9)

“친구 중국사람 같이 친구 모임 있을 때 이야기 많이 해요.” (연구참여자 10)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외국어 능력을 활용하여 출입국사무소에서 통역을 하거나, 중국어 교육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 개인에게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실현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한다. 또, 사회복지적 측면에서는 서비스의 수혜 대상에서 제공자로서의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의 봉사활동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발적인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개인의 성취를 넘어 다수와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희 엄마들끼리 다문화, 이주여성 중국 엄마들끼리 모이는 수업이 있어요. 모여서 동아리 활동 하고요. 거기에서 지역사회나 이런 데에 가서 봉사 활동도 하고 행사 있고 하면은 행사도 참여하고요.” (연구참여자 8)

“거의 외국 사람들 왔어요. 재미있어요(출입국에서 통역 자원 봉사).” (연구참여자 10)

“지금 인천 출입국관리소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일주일 두 번씩. 한국어 못하는 사람하고 서류작성, 한국어 조금 아는데 도와줄 수 있어요.” (연구참여자 9)

2)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과정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과정에 대한 소주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한된 접근성; 통합서비스 구축 필요'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었다. 그 원인은 한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일반가족과 다문화가족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며, 다문화가족은 별도의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는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구분이란 목적이 있지만, 사실상 대상자를 '분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서비스 분절과 수혜자의 낙인을 유발하게 된다.

■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한된 접근성; 통합서비스 구축 필요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복지 '수혜자'라는 낙인 감정을 느낀다고 토로하였다. 이주배경이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실 주류사회 주민들과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복지재원은 대부분 세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주류사회 주민들은 역차별이란 비판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다문화가족에게는 낙인 감정을 유발하여 서비스 접근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의 획일적인 구분은 복지재원의 효율적 분배 측면에서도 문제가 야기된다.

가족 안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는 일은 가족복지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다문화가족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을 무조건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행된 정책

은 오히려 이주민의 한국사회 적응을 저해하게 된다. 모든 다문화가족을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한 계층으로 획일화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시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결혼이주여성의 개별적 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해 대상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또, 다문화가족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자라는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분리된 전달체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는 그 프로그램 따라가 봤잖아요. 근데 좀 약간. 싫어. 꼭 그 다문화가정 묶어가지고 다 가가지고 티내는 것도 싫고. 취업 성공 패키지 할 때도, 그것도 일반 가정이면 의료 보험이 뭐 얼마 이하라야지 되거든요. 다문화 가정은 그거를 안 봐요.” (연구참여자 1)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 저소득 가정이잖아요. 다문화 가정 대부분이 어렵게 살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실이에요. 우리 남편도 학교에서 무슨 저소득 지원금 그런 것 왔잖아요. 우리 남편이 나보고 신청하지 말래요. 왜, 이것 신청하면 선생님부터 알잖아요. 선생님부터 저 얘기 집이 못 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거 봐 우리 남편부터 그것 신청하지 말래요. 절대로...(이하 생략)...” (연구참여자 7)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기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먼저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보편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스스로 정보를 찾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원하는 사회복지 정보 접근에 실패를 한다. 현재 기초 지자체 단위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인터넷 사이트인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https://www.liveinkorea.kr/portal/main/intro.do>)’에서는 13개국의 다중언어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원하는 세부 분야의 정보에 접속 시 한국어로만 제공이 되고 있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데가 많지만 한국어 때문에 정보 찾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서비스 받는 게 어려워요. 처음에 온 사람들도 이러한 정보가 필요할 텐데, 그러면 그 사이트 한국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 같이 있는 거! 다 문화센터 책상 전단지 있잖아요. 제가 알아서 봐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다문화센터 가면 전단지 자주 봐요. 제가 꺼내서 봐요. 특별히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단지가 다 있기 때문에...(이하 생략)...”
(연구참여자 5)

결혼이주여성들이 원하는 사회복지 관련 정보 접촉에 어려움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정보가 분절되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고용, 교육, 가족 등 여러 분야의 정보는 각 소관 부처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또,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만 해도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각각 상이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각 부처와 기관 별로 정보가 분절되어 제공되고 있어 결혼이주여성이 원하는 교육 및 취업 관련 정보에 접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사이트가 아마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통해서 여기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취업도 그렇고 유아 전공 이런 것도 그렇고 사이트 하나 딱 있으면 좋죠.” (연구참여자 7)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서. 몇 군데 물어봤는데 다문화센터에서 이런 곳 없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다른 데는 있어도 제가 정보는 조금 찾기 어렵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 정보 찾기. 정보 제공 어떻게 우리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관 아니면 사이트 왜냐하면 사이트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찾기 힘들잖아요. 혹시 한 군데! 들어가면 모든지 다 나올 수 있게...(이하 생략)...” (연구참여자 5)

결과적으로 분절된 서비스 정보 시스템은 한국생활에 낯선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복지 관련 정보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다문화 통합정보시스템’ 마련이 필

요하다. 정보시스템 안에는 다문화 배경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접근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접속 방식에 대한 교육이 수반되어 필요한 자원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국계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을 생활영역 별로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의 사회복지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정부는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의 적응을 높이고, 가족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였다.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패러다임은 주류사회로의 적응에 초점을 맞춘 동화주의였다.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할 경우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시각으로 이주배경 여성들을 특별한 욕구를 갖고 있는 취약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부처 별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점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 선별적 복지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실정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은 사회복지 혜택 대상자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은 서비스를 받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도 낙인 감정을 유발하게 된다. 실제로 다문화가족은 여성의 학력, 배우자의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다양한 적응 형태를 보인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다문화가족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지 않다. 다문화가족의 복지 서비스 제공 시 가족환경에 대한 면밀한 사정을 바탕으로 욕구

에 부합한 개입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출산과 양육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데, 어머니의 역할수행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어머니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이 중국 출신인 것을 숨기기 위해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자녀의 학교 선생님과과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학교생활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금민아(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실제로 주양육자인 결혼이주여성은 자녀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것이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13.8%가 다문화가족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여성가족부, 2013).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이주배경 숨기기'에는 우리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강한 배타성이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수행 제한은 양육 효능감을 저하시키며, 자아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게는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다. 학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교육공동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 또,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출신배경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활동을 원하고 있으며, 직업 확보를 위해 '취업 성공 패키지', '방송통신 대학 진학', '전문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재교육 과정 후에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한다. 구직 과정에서 중국 출신의 배경은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열악한 고용지위에 머무르게 된다. 2015년도 통계청

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취업을 한 이주여성들의 직종은 단순노무직(29%)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직(18.7%),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직(14%)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 또, 고용현장에서 일을 하는 이주여성들은 근로자로서 한국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고용과 관련해 겪는 경험은 한마디로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불평등은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다양한 사회문제의 잠재적 원인이 된다. 나아가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용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중국 결혼이주여성들은 일상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편견을 경험한다. 정부는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배타적 태도는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사회에서는 중국에서 온 조선족 여성들은 “농촌 총각과 결혼한, 남성들에게 성적으로 준비된, 위장결혼 등으로 돈을 벌러 온”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지배적이다(박준성 외, 2015). 특히, 조선족은 범죄와 관련된 혐오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대중매체를 통해 내재화되는 간접경험이 부정적인 인식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송미영, 2010). 자신이나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높은 불안을 느끼고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오영삼 외, 2014). 이에 대중매체에서는 특정 집단이 불안을 유발하는 대상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주민들에게는 지역사회 중심의 지지체계를 형성하여 사회적 상호작용, 상호원조 등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적 지지망의 형성은 중요하다(Moon & DeWeaver, 2005).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 초 가족중심의 협소한 지지체계의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같은 중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들끼리 사적 지지망을 형성하고 있다. 모국 출신의 사적 지지망은 낯선 환경으로의 이주와 새로운 생활세계의 적응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손병돈(2014)은 본국 출신의 사회적 지지망이 강할

수록 사회복지 기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요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모국 출신의 지지망을 형성해 주는 사회복지적 전략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이원화는 다문화가족을 하나의 다양한 가족형태로 수용하기보다 일반가족과 구분을 짓고 경계를 만들고 있다. 일반가족들과의 통합 속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현재 151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217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통합되어 가는 중이다. 전달체계의 일원화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절성과 획일성을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정보 네트워크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 정보연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정보연계 확대 추진이 지속되어야 한다(이태진 외, 2010) 교육, 고용, 의료, 가족, 상담 등의 분절된 정보로 결혼이주여성들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다중언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특히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안 되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직접 찾아가 출신 국적별 언어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홍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손병돈, 2014).

본 연구는 중국 결혼이주여성들의 생활 속에 나타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의미 있는 경험들을 통해 향후 다문화사회 구현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결혼이주성과 그들이 속한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담보하는 것은 사회통합에 있어 수반되어야 하는 필수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 거주기간 및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복지 욕구 및 지원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향후 결혼이주여성의 생애주기별 나타나는 특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

- 강미선. 2013. “국제결혼 여성들의 가족생활과 경제활동에 관한 비교연구: 도시에 거주하는 중국조선족과 한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유진. 1999.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4권 제2호, 61-80쪽.
- 강희영 · 문영민. 2017. 『통합적 관점의 이주 여성 지원 정책 방안 연구: 이주 다양성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공수연 · 양성은. 2014. “중국국적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과정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2권 제1호, 133-150쪽
- 금민아. 2017. “한부모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자녀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옥. 2013. “다문화 이혼가정 중국인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지원서비스의 문제점”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김안나 · 최승아. 2016.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서비스 이용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연구』, 제47권 제2호, 281-308쪽.
- 김윤경. 2017. “중국인 결혼이주여성의 삶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기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 노은하. 2016. “한국 이주 중국 여성의 어머니 됨”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당징야. 2013.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영향요인: 중국(조선족, 한족)과 베트남 여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명숙. 2010.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0권 제2호, 193-218쪽.
- 박준성 · 허성호 · 전미연 · 정태연. 2015. “남한에서 조선족 직장여성의 문화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21권 제1호, 21-43쪽.
- 손병돈. 2014.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및 이용 결정 요인.” 『보건사회연구』, 제34권 제4호, 354-384쪽.
- 송미영. 2010. “한국의 다문화의식: 다문화 수용성의 원인 분석.” 『민족연구』, 제41권, 74-97쪽.
- 여성가족부. 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11-1383000-000384012)』. 서울: 여성가족부.
- 오영삼 · 남성희 · 윤수경. 2014. “내집단의 특성이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34권 제2호, 424-452쪽.
- 윤혜미, 2009.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임파워먼트 기반의 사회복지실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4호, 85-108쪽.
- 이민경, 2015. “중국 출신 고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교육을 통해서 본 정체성 재구성: 대구·경북 지역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제21권 제2호, 141-171쪽.
- 이영분·최승희·송인석, 2010. “농촌 결혼이주여성들의 복지욕구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3호, 163-191쪽.
- 이주재·김순규, 2010. “결혼이민 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제30권, 299-322쪽.
- 이종수, 2009. 『행정학 사전』. 서울: 대영문화사.
- 이태진·홍경준·김사현·유진영·손기철·박형준, 2010. 『사회 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연구보고서2010-11)』.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해웅, 2013. “중장년 조선족 이주 여성의 노동 경험과 탈구직 삶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학위 논문.
- 장효위, 2013. “한국과 중국 다문화가족 연구: 한족가족과 조선족가족 비교를 중심으로”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통계청, 2015. 『2015 경제활동 인구조사』. 서울: 통계청.
- 홍기혜, 2000. “중국조선족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Vol.3, No.2, pp.77-101.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C.A.: Sage.
- Moon & DeWeaver, 2005. “multicultural multimodal multisystems(MULTI-CMS) approach for Korea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Social Worker Research and Evaluation*, Vol. 6, No. 1, pp.57-74.
- Stake, R. 1995. *The art of case study*, C.A.: Sage.
- 고용노동부, 2017. <http://www.work.go.kr/pkg/succ/content01/busiInfo.do>
[검색일: 2018.2.16.]
- 통계청, 2016. “2016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 Thema.do> [검색일: 2018.2.16.]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Social Welfare in the Life Area of Marriage Immigrant Women

Kim, Gi Wha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Kim, Young soon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Inha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o the social adaptation process in three living areas (married life and family relationships, employment and economic activities, social relations) of the marriage migrant women who immigrated to South Korea. On the basis of the result it intends to offer implications for their family welfare. The study participants was adapted ten migrant women(seven Han Chinese and three Korean Chinese), and the data collection carried out the in-depth interview. Data analysis is utilized mainly an analysis of the central theme in the area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This analysis is the search for not how to apply a specific theoretical framework to analyze data, but how to find a central theme that appears. Through this method, the process of deriving the central theme, small scale, and core concepts(words, phrases) was repea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visiting services such as maternity helper and child care are helping migrant women to give birth and bringing up children. However, as the child grows, the migration background becomes an obstacle to her role as a mother. Second, while trying to secure jobs, they experience barriers to entry into the labor market and remain in unstable jobs. Third, in the early stage of migrant migration, it is weak in the formation of social relations, but after adapting to the life in Korea, social networks are extended through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Fourth, in the process of using welfare services, we experience constraints on accessibility due to dualized delivery system and segmented welfare information. This study subjects the meaningful experiences related to welfare in the life of Chinese marriage migrant women. It is meaningful that it provided substantial content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future.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guarantee of the welfare of married immigrant women and their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were introduced into our country, is an essential factor to be involved in social integ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social welfare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as well as immigrant women.

Key words: Marriage migrant women, multicultural families, social welfare, social integration, case study

- ┃ 투 고 일 : 2018년 2월 22일
- ┃ 최초심사일 : 2018년 3월 9일
- ┃ 게재확정일 : 2018년 4월 9일